

2023년 상반기 해외건설 산업 동향

<요약>

-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 II. 글로벌 건설기업 매출 동향
- III. 해외건설 수주 동향
- IV. 시사점

작성

선임연구원 강정화 (6252-3612)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요 약>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시장 전망) 2023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14.1조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전망치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15.4조 달러 전망

- 세계 건설시장은 글로벌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는 회복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완전한 성장세에 진입할 전망
- 2023년 세계 건설시장은 글로벌 공급망 복구에 따른 기자재·인력 수급 원활화로 지연되었던 프로젝트 발주가 재개되고, 그린에너지 등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돼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2023년 분야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인프라 분야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분야는 침체가 이어질 전망

(지역별) 2023년 지역별 시장규모는 아시아 7.36조 달러, 유럽 3.39조 달러, 북미 2.24조 달러, 중동·아프리카 0.62조 달러, 중남미 0.48조 달러 순

- 2024년 지역별 시장규모는 아시아 8.24조 달러, 유럽 3.61조 달러, 북미 2.36조 달러, 중동·아프리카 0.68조 달러, 중남미 0.51조 달러

(중동 발주 동향)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53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

-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3.5% 감소한 24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5월 카타르 및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100억 달러 및 94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이 체결

2023년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지연되어 왔던 프로젝트 발주의 본격화 및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증가로 1,1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

(인프라) 작년 말 4.60조 달러로 예상됐던 2023년 세계 인프라 시장규모는 2.8% 상향 조정된 4.74조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5.28조 달러 전망

- 2023년 기준 세계 건설시장에서 인프라 시장 비중은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 시장은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인프라 시장 성장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건설시장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중
- 2025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규모는 5.74조 달러, 2030년 7.94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과거 화석에너지 기반의 인프라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로의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예정



II. 글로벌 건설기업 매출 동향

글로벌 Top 250 건설기업의 2021년 매출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한 3,979억 달러에 불과

- 2021년 세계 건설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글로벌 Top 250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에 이어 역성장을 지속
- 2021년을 저점으로 2022년에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부터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공종별) 2021년 매출액은 교통 분야 1,322억 달러, 빌딩 899억 달러, 정유·석유화학 516억 달러 순

- 인프라 분야인 교통 분야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공종에 걸쳐 매출액 감소가 나타나 빌딩 및 정유·석유화학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10.3% 및 10.6% 감소

(지역별) 2021년 매출액은 유럽 1,131억 달러, 아시아 976억 달러, 북미 698억 달러, 중동 485억 달러, 중남미 196억 달러

(국가별) 2021년 글로벌 Top 250 기업 중 중국 기업의 매출액은 1,129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스페인 518억 달러, 프랑스 504억 달러, 미국 241억 달러, 한국 227억 달러 순

IV.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전망

(수주 동향) 2023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50.4% 증가한 173억 달러

- 지역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중동 66.2억 달러, 북미 50.6억 달러, 아시아 40.4억 달러, 아프리카 6.5억 달러, 중남미 5.4억 달러, 유럽 3.7억 달러 순
- 핵심 수주지역인 중동지역 수주가 전년동기 대비 197% 증가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를 견인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를 수주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증가에 크게 기여
- 북미 수주액은 IRA 시행으로 전기자동차, 리튬배터리, 및 태양광 생산 건설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 증가로 상반기 수주액이 전년 대비 약 30배 증가
- 공종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플랜트 80.9억 달러, 건축 63.9억 달러, 토목 8.4억 달러를 기록



(수주 전망)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현 추이가 지속될 경우 350억 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하반기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대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력 시장인 중동 수주가 전년 대비 증가
- 코로나 상황 개선 및 유가 상승으로 중동 발주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하반기 네옴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중동지역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 국내 주택 등 건설경기 하향으로 국내 건설기업들의 시선이 해외수주 확대에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인 팀코리아 전략도 수주확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IV. 시사점

국내 건설경기가 하락함에 따라 해외수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네옴시티 등 중동지역 발주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목표치 350억 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수익성이 높았던 민간 주택시장이 금리인상으로 급랭하고 있으며, 당분간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건설기업의 수주 전략이 국내에서 해외로의 전환이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
- 6월 5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미탈 플랜트 수주 및 하반기 네옴시티 발주 등 한동안 부진했던 중동 수주가 다시 활기를 띠 가능성 존재

연간 해외수주 400억 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선 글로벌 인프라 시장 공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인프라 수주를 위해선 과거와 같은 시공 위주의 전략으로는 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분야에 대한 수주 전략 변화가 필요
- 플랜트 및 시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역량을 인프라 및 사업개발·운영 분야로 밸류체인 확대가 필요하며, 사업개발을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 모델 "팀코리아" 체제의 활성화가 필요
- 원전 수주처럼 대형 발주는 금융 및 군사 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패키지 딜 형태의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발주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딜 콘텐츠 확보가 중요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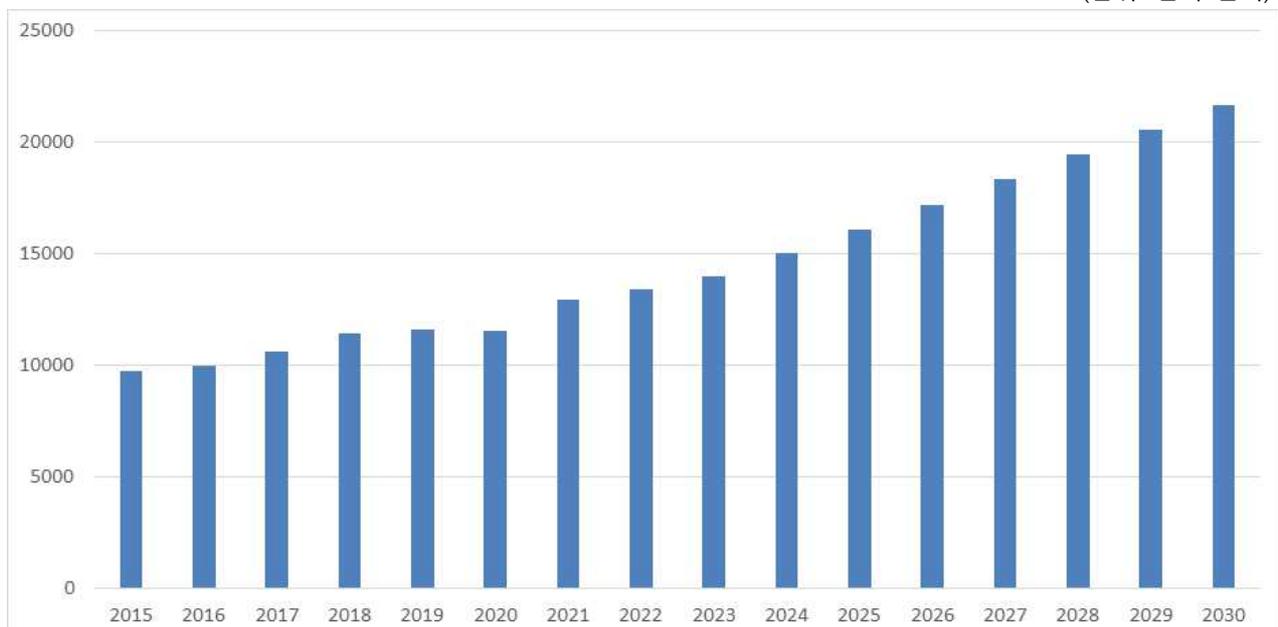
1. 세계 건설시장 동향

2023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14.1조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전망치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15.4조 달러 전망

-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2021년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 진입함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조절에 나서고 있음
- 2023년 상반기 세계 건설시장은 빠른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단가 증가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
- 세계 건설시장은 글로벌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는 회복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완전한 성장세에 진입할 전망
- 2024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5% 성장한 15.4억 달러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은 2024년 이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
- 2023년 분야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인프라 분야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분야는 침체가 이어질 전망
- 2024년에도 인프라 분야는 11%대 성장률을 유지해 세계 건설시장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세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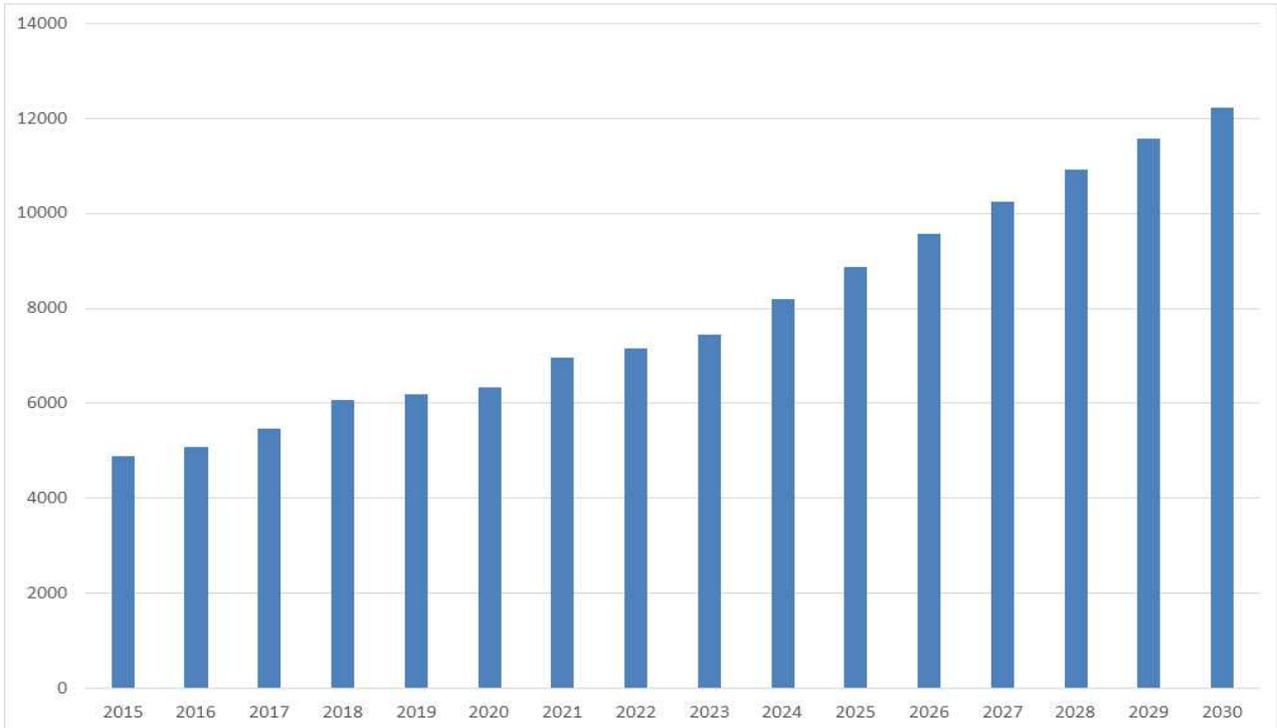
2. 지역별 건설시장 동향

(아시아) 2023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7.36조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전망치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8.24조 달러

- 작년 말 2023년도 아시아 시장 전망치는 7.46조 달러였으나, 올해 글로벌 금리인상 등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하향 조정, 2024년 전망치는 8.20조 달러에서 8.24조 달러로 상향 조정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3년 상반기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 하반기 이후 서서히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
- 아시아 건설시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2024년 이후 성장 궤도에 다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 건설시장은 세계 건설시장의 52%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철도, 도로 등 경제개발과 관련된 교통 인프라 수요와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 아시아 최대 건설시장인 중국은 2023년 시장규모는 4.61조 달러로 전년 대비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5.21조 달러 전망
- 중국 건설시장은 아시아 건설시장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시장이 위축될 경우 아시아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로 수요위축 및 내수부진 영향으로 2023년까지 건설경기가 약세를 나타내나, 2024년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 2023년 인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6,5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8,051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인도는 아시아 건설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2030년 시장규모는 1.40조 달러로 연 10%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3년 일본 건설시장 규모는 5,010억 달러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시장규모는 5,3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6.7% 성장할 전망
- 2023년 호주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3,635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3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3,979억 달러 전망
- 2023년 동남아시아 주요국 건설시장 규모는 인도네시아 4,447억 달러, 필리핀 537억 달러, 베트남 462억 달러, 말레이시아 436억 달러, 태국 459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인도네시아 4,946억 달러, 필리핀 610억 달러, 베트남 521억 달러, 태국 494억 달러, 말레이시아 479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아시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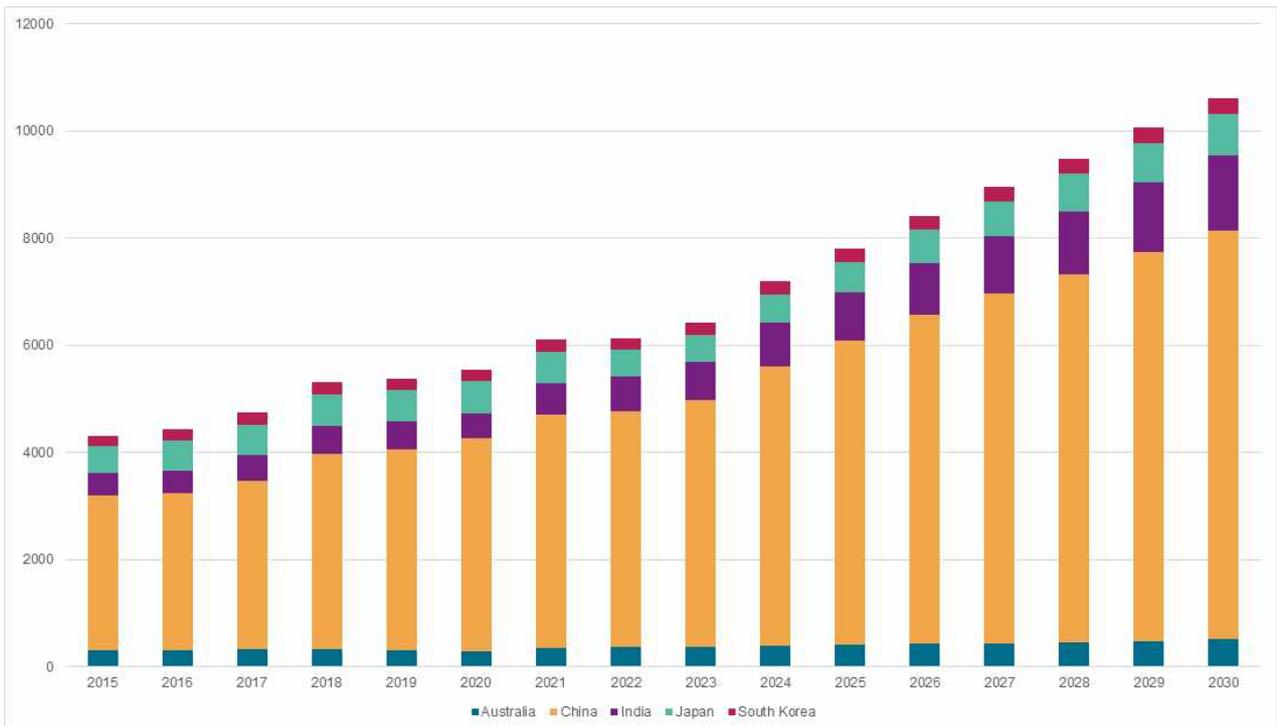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아시아 주요 국가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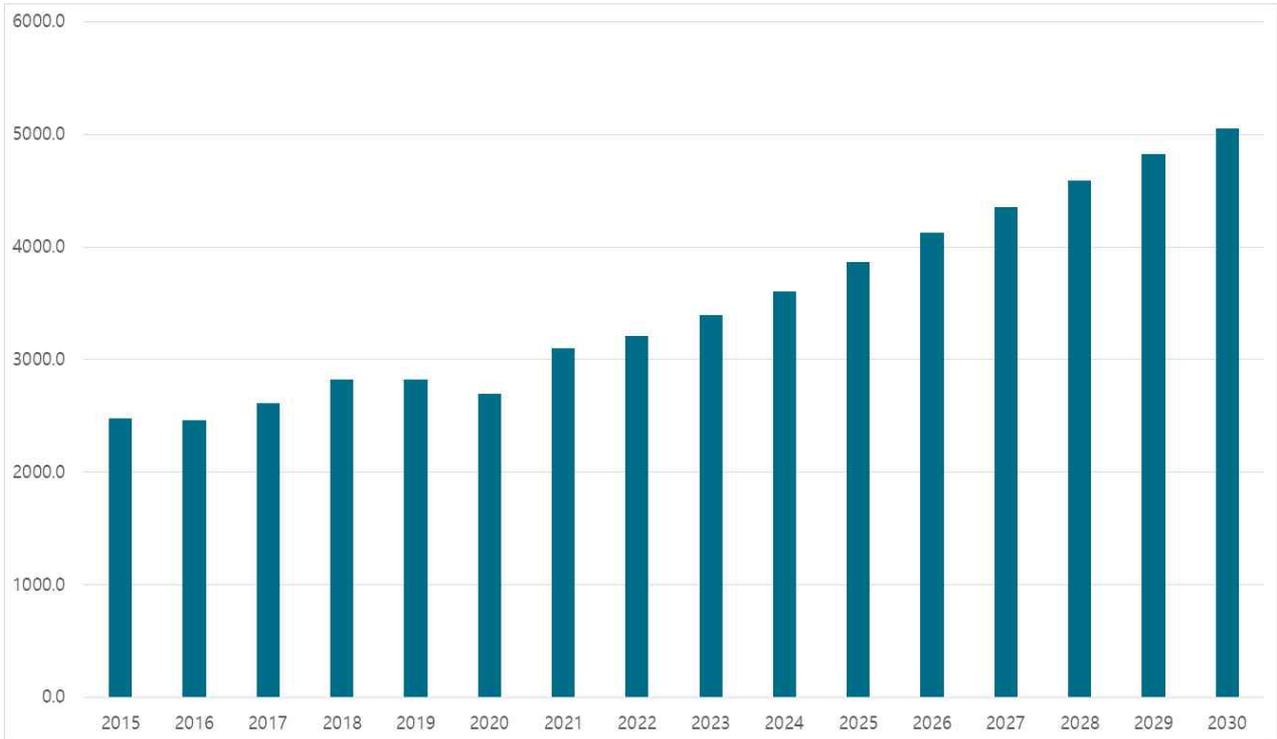
자료: IHS

(유럽) 2023년 유럽 건설시장 규모는 3.39조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3.61조 달러

- 2020년 역성장을 기록했던 유럽 건설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올해도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2022년 하반기 2023년 유럽 건설시장 전망치는 3.11조 달러였으나, 연초 전망치는 3.39조 달러로 9% 상향 조정
- 독일을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건설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 주요인으로 올해 독일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4,578억 달러
- 2024년 유럽 건설시장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 등 LNG 관련 투자 및 태양광 및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 투자가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등 새로운 가스 공급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건설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가 커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유럽 주요 국가의 2023년 시장규모는 독일 4,578억 달러, 영국 4,518억 달러, 프랑스 3,740억 달러, 이탈리아 3,523억 달러, 러시아 2,568억 달러
- 2023년 러시아 건설 시장규모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전년 대비 13.1% 감소한 2,568억 달러로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시기에 따라 우크라이나 건설시장의 규모는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5년부터 인프라 및 주택 시설 복구를 위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
- 2023년 우크라이나 건설시장 규모는 201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4년 종전될 경우 시장규모는 2025년 464억 달러, 2026년 615억 달러, 2027년 786억 달러, 2028년 1,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유럽 시장은 2024년 3.61조 달러, 2025년 3.87조 달러, 2026년 4.13조 달러로 2024년 이후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유럽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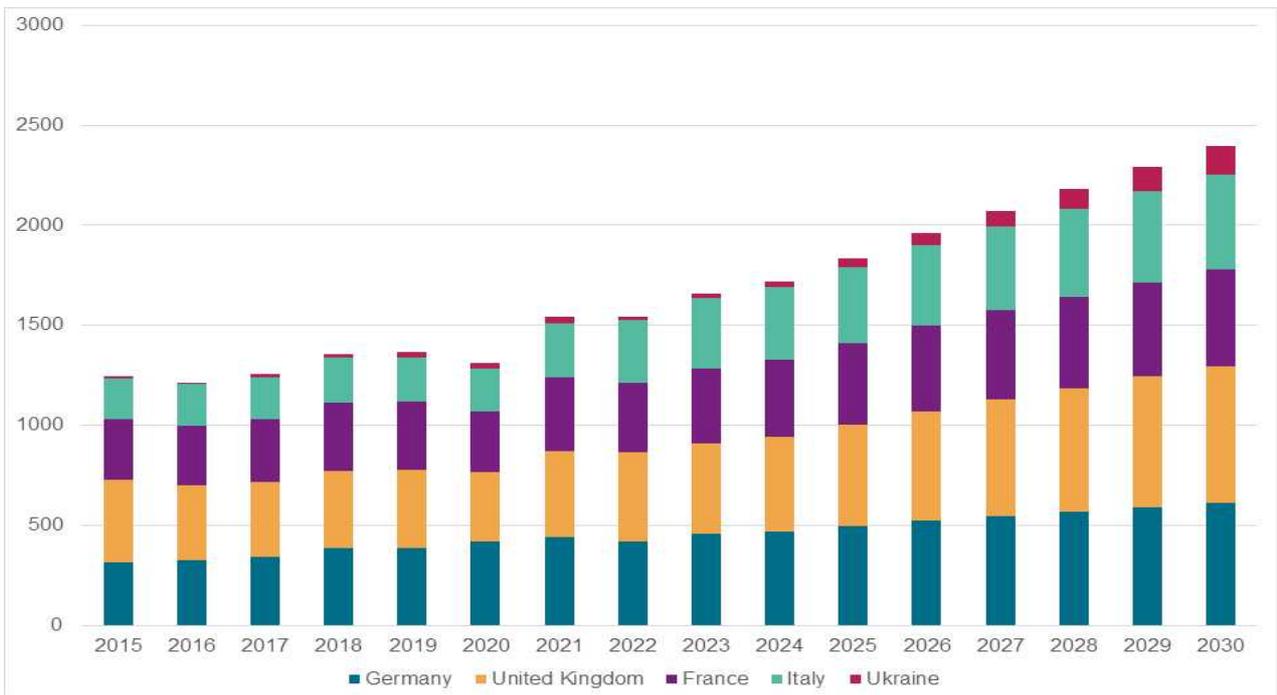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유럽 주요 국가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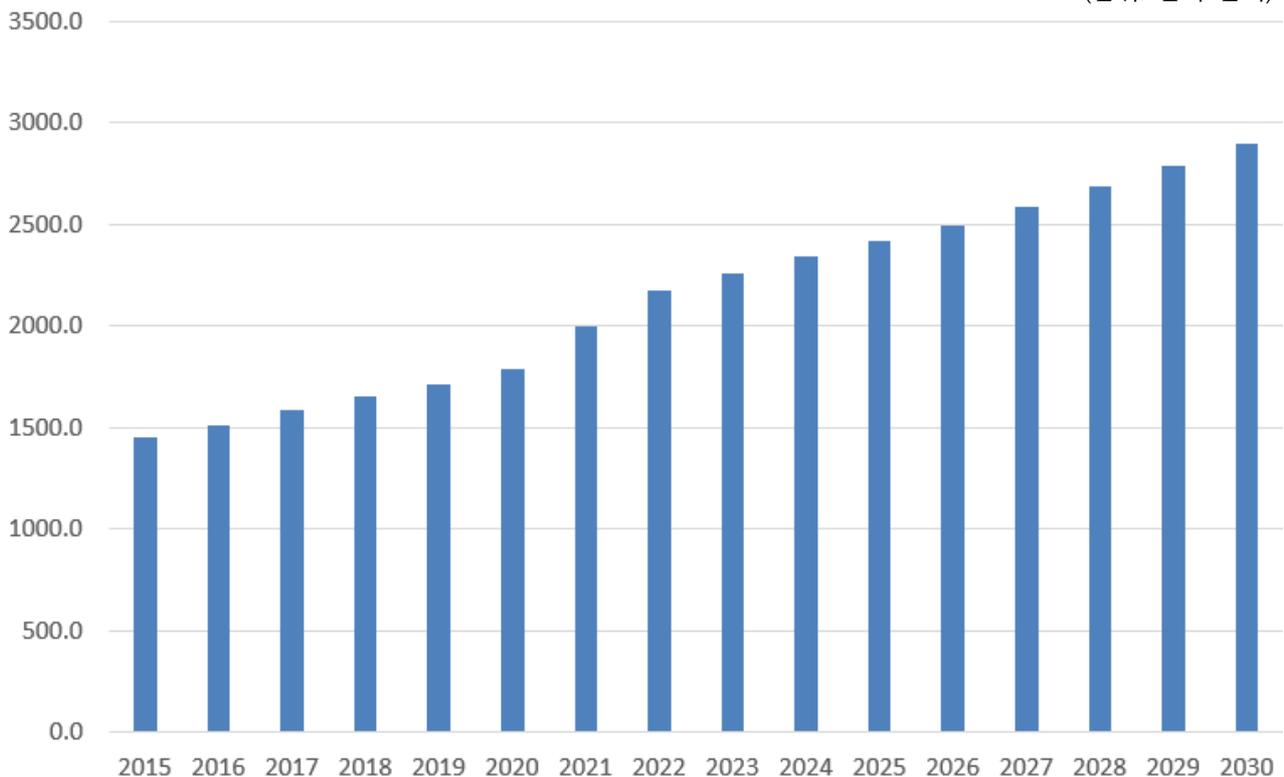
자료: IHS

(북미) 2023년 북미 건설시장 규모는 2.24조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2.36조 달러 전망

- 미국 경기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2023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1.84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빠른 인플레이션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여전히 좋은 상황
- 2024년 미국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1.91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시장규모는 1.97조 달러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 건설시장 호황으로 2023년 북미 건설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북미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2.34조 달러 전망
-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실행으로 전기자동차, 리튬 이차전지,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한 관련 건설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북미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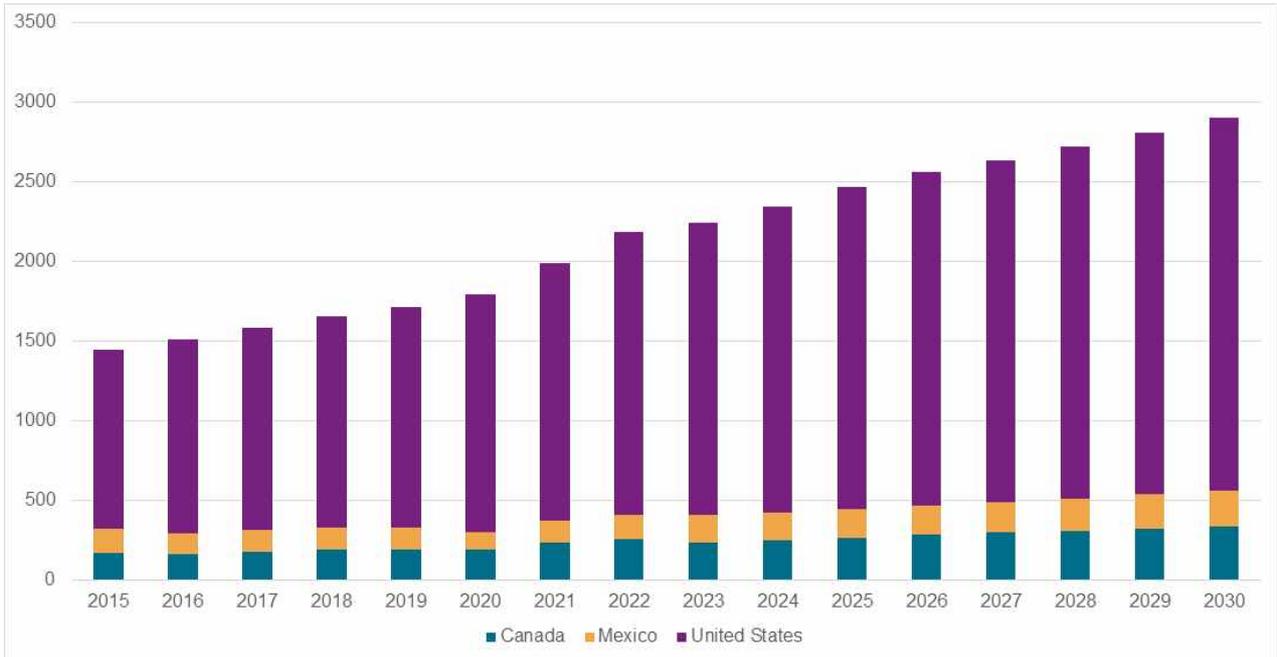


자료: IHS



북미 주요 국가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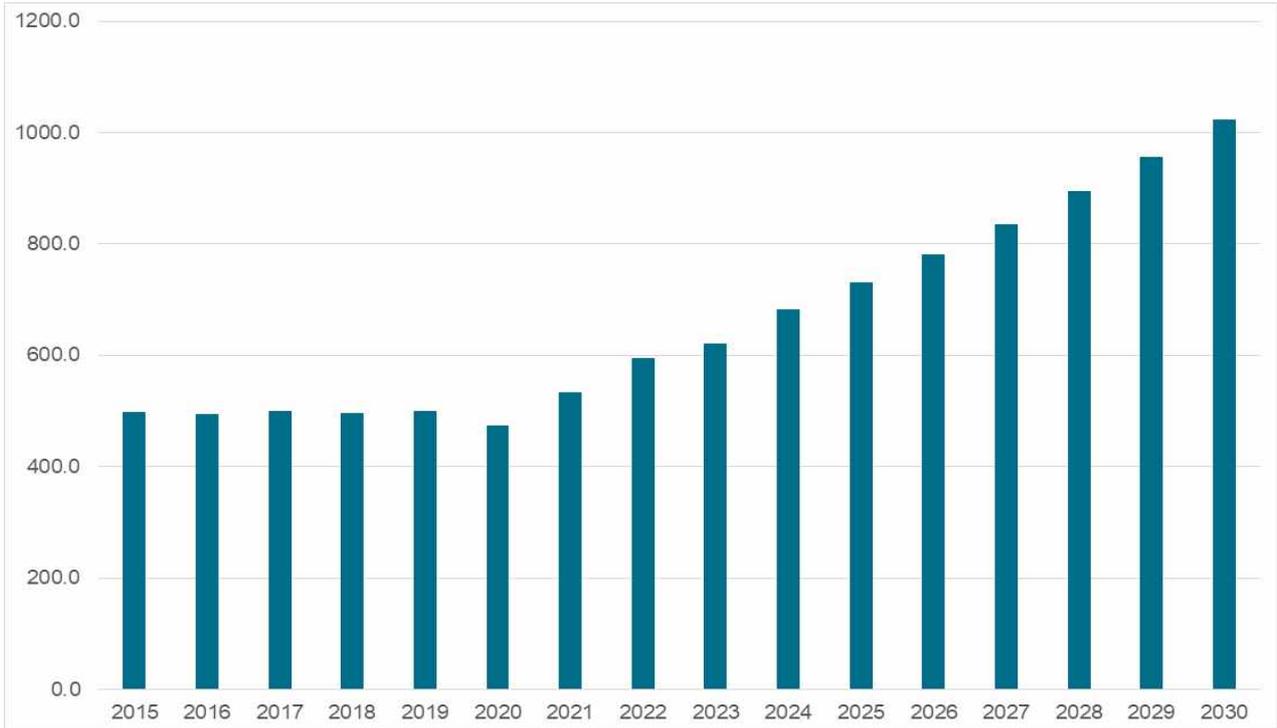
자료: IHS

(중동 및 아프리카) 2023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6,210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6,828억 달러 전망

- 세계 건설시장의 4.6%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나, 민간기업에게 시장 개방도가 높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
- 2024년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글로벌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로 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건설시장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하향 조정
- 중동·아프리카 건설 시장규모는 2025년 7,306억 달러, 2026년 7,804억 달러, 2027년 8,35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23년 주요 중동국가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1,206억 달러, UAE 924억 달러, 카타르 798억 달러, 이스라엘 618억 달러, 나이지리아 510억 달러, 이란 414억 달러 순
-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 등 주요 프로젝트 발주가 늦어지면서 올해 시장규모도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나,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1,206억 달러 예상

중동·아프리카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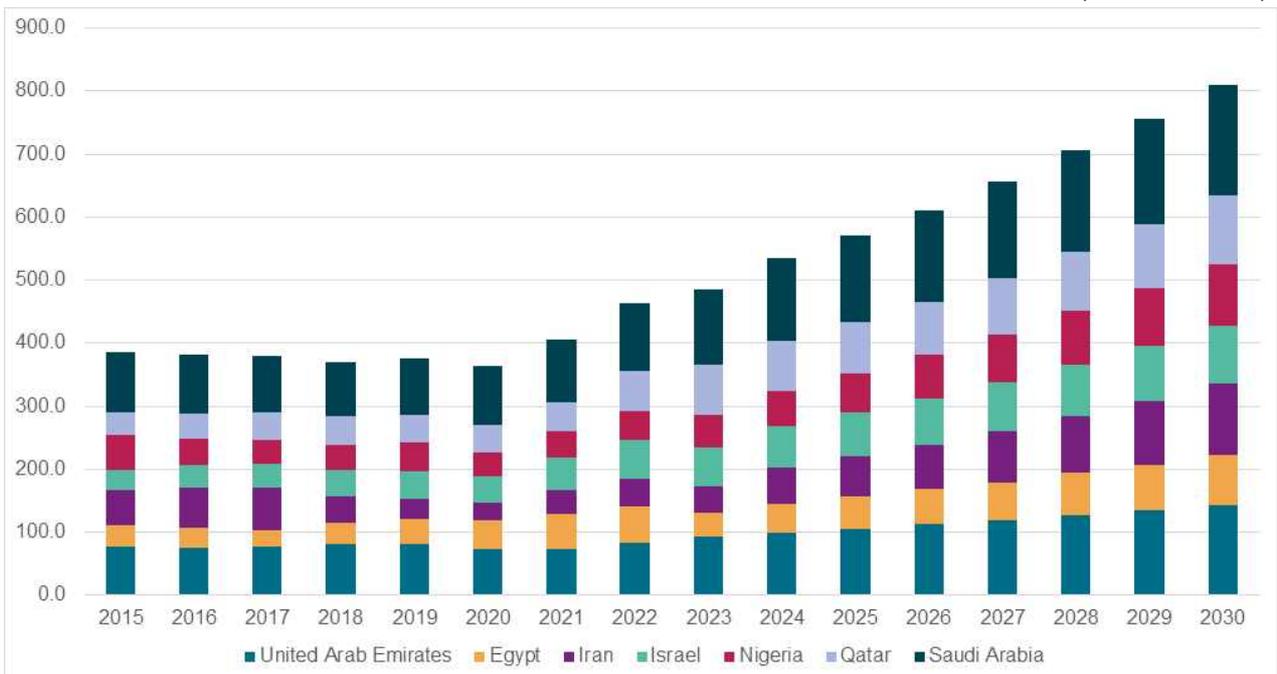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중동·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중동 발주 동향)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53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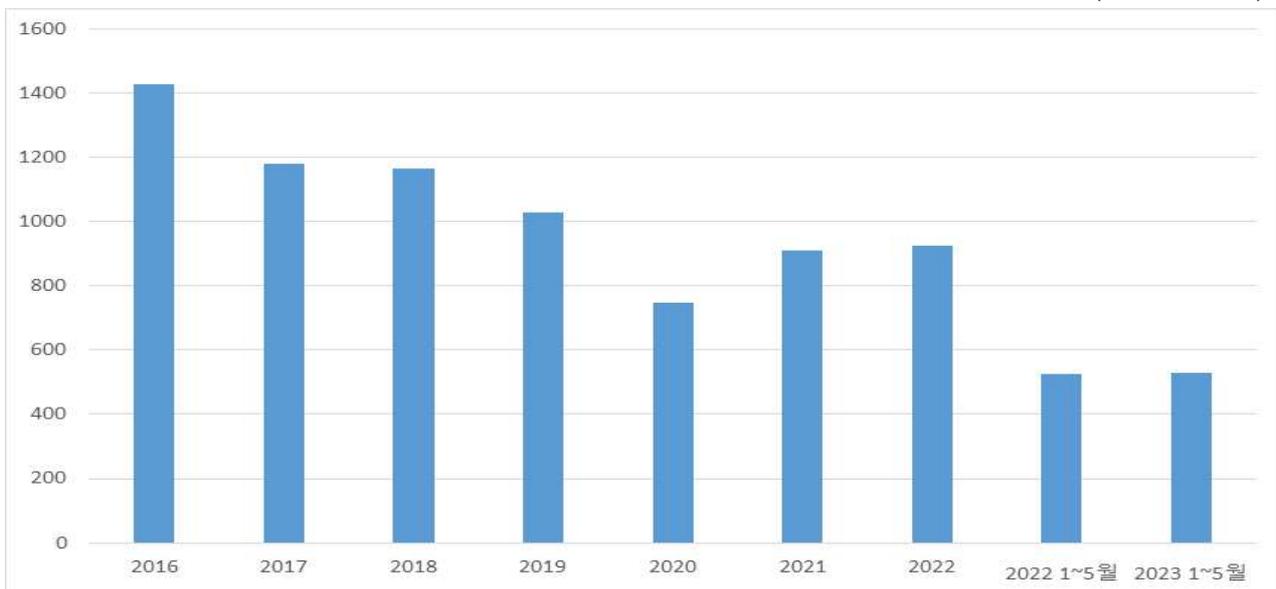
-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3.5% 감소한 24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5월 카타르 및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100억 달러 및 94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이 체결
- 6월 사우디아라비아 Amiral 프로젝트 반영 시 상반기 중동 프로젝트 계약액은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2023년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지연되어 왔던 프로젝트 발주의 본격화 및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증가로 1,1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

- 중동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의 재정균형유가는 배럴당 50~65 달러 선이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재정 균형 유가 수준을 넘어서 중동지역 발주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16년 이후 침체를 겪고 있는 중동시장은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지역 국가들의 지출 여력 확대로 그동안 지연되었던 프로젝트 발주되면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을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공급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

중동 건설 계약 체결 동향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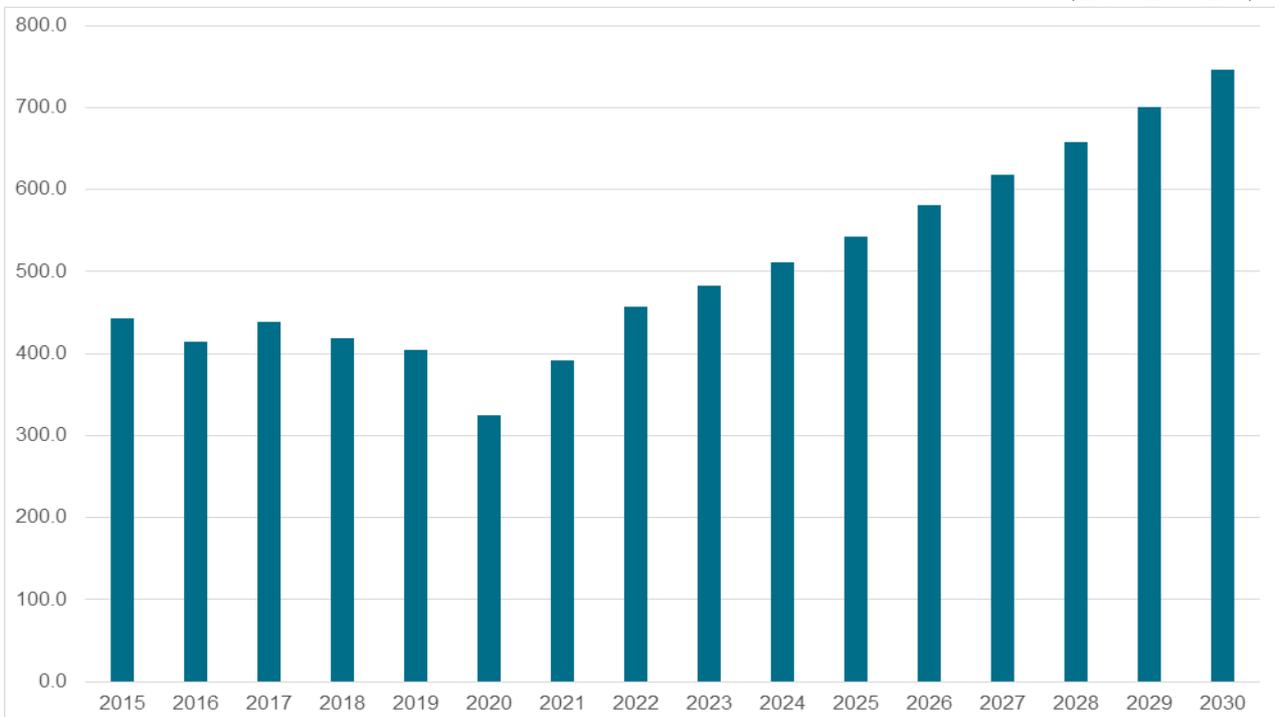
자료: MEED

(중남미) 2023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4,831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5,119억 달러 전망

- 2012년 이후 중남미 건설시장은 경제부진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 건설시장 성장률은 코로나 사태로 20% 역성장을 기록
- 2021년 중남미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20.5% 성장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으며, 2022년에도 17% 성장
- 하지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실질 성장률은 이보다는 크게 낮았을 것으로 추정
- 2023년 주요 중남미 국가의 시장규모는 브라질 2,002억 달러, 아르헨티나 499억 달러, 콜롬비아 468억 달러, 칠레 462억 달러, 파나마 449억 달러 순
- 남미 건설시장은 2025년 5,430억 달러, 2030년 7,46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남미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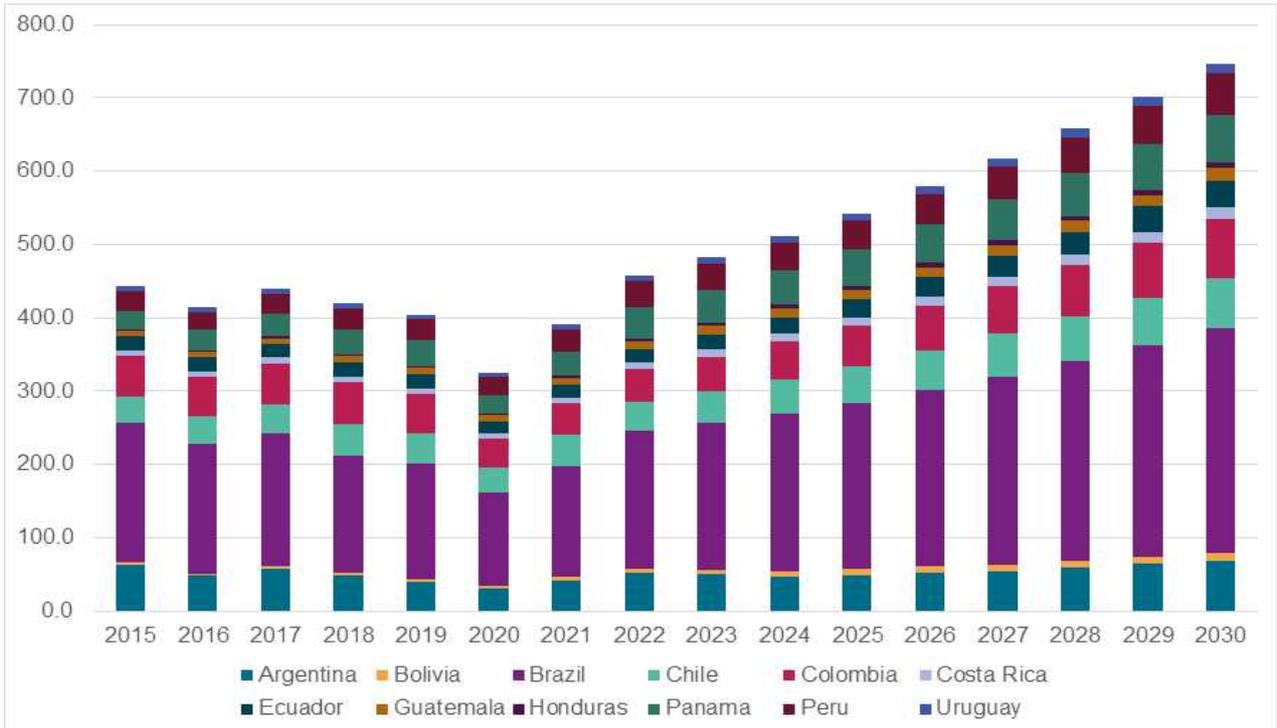


자료: IHS



남미 주요국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3. 세계 인프라 시장 동향

(시장 동향) 작년 말 4.60조 달러로 예상됐던 2023년 세계 인프라 시장규모는 2.8% 상향 조정된 4.74조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5.28조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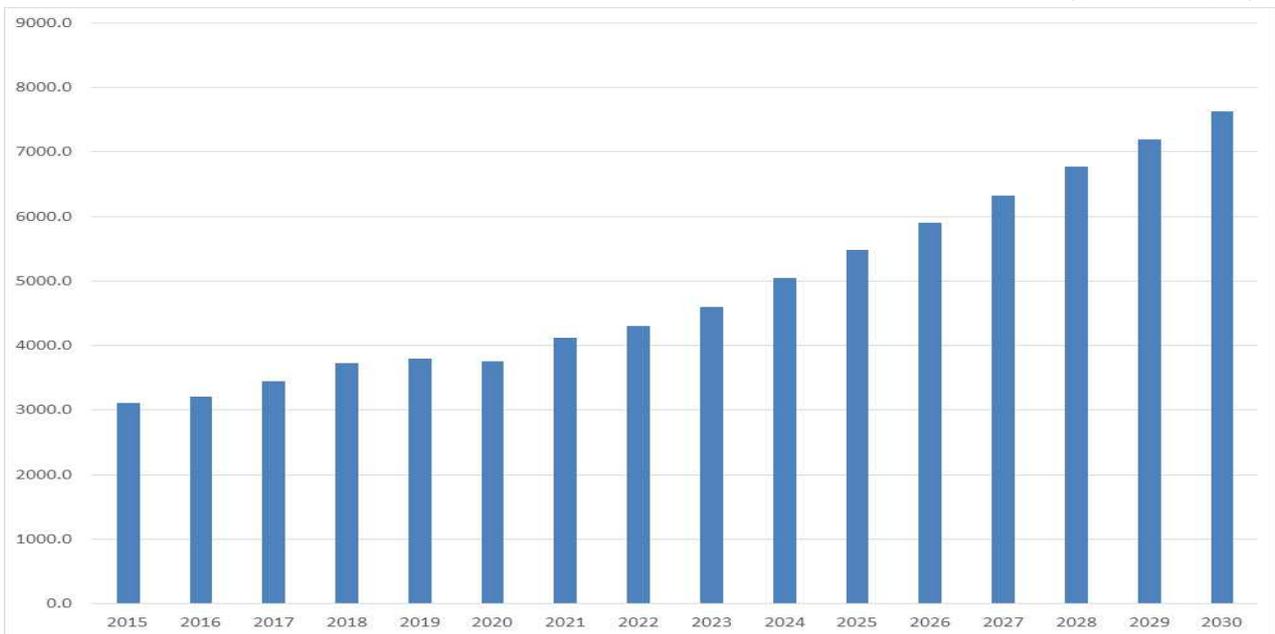
- 2023년 기준 세계 건설시장에서 인프라 시장 비중은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 시장은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인프라 시장 성장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건설시장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중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인프라 시장은 1.0% 역성장했으나, 2021년 전년 대비 9.7% 증가해 반등에 성공
- 2023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은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미래 성장을 위한 글로벌 투자는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025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규모는 5.74조 달러, 2030년 7.94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 화석에너지 기반의 인프라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로의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예정
- 2022년 이후 연평균 7.4% 성장해 인프라 시장은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분야별 동향) 2023년 기준 분야별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2.37조 달러, 발전 등 에너지 분야 1.65조 달러, 수처리 분야 0.72조 달러

- 인프라 분야별 시장 비중은 교통 분야 50.1%, 에너지 분야 34.7%, 수처리 분야 15.2%를 차지
- 인프라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통 분야는 매년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시장규모도 전년 대비 14.5% 증가한 2.71조 달러, 2025년 5.74조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선진국의 경우 낮은 교통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전기화 및 스마트화에 대한 신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도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신규 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교통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중
- 2024년 에너지 분야 인프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1.74조 달러로 예상되며, 2025년 시장규모는 1.84조 달러 전망
- 2023년 신규 발전소 건설물량 400GW 중 약 350GW가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인프라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 지구온난화에 따라 글로벌 물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처리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크게 증가
-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한 8,287억 달러, 2025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9,163억 달러 전망

세계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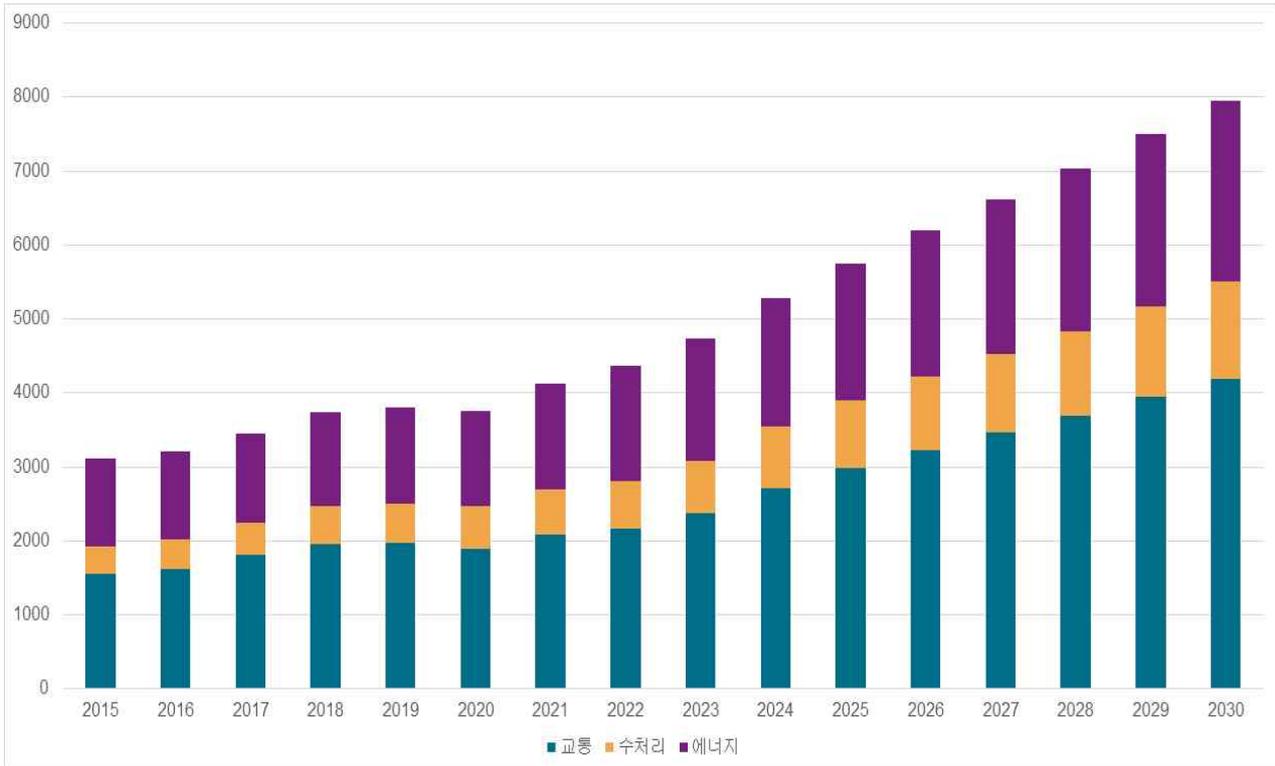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분야별 세계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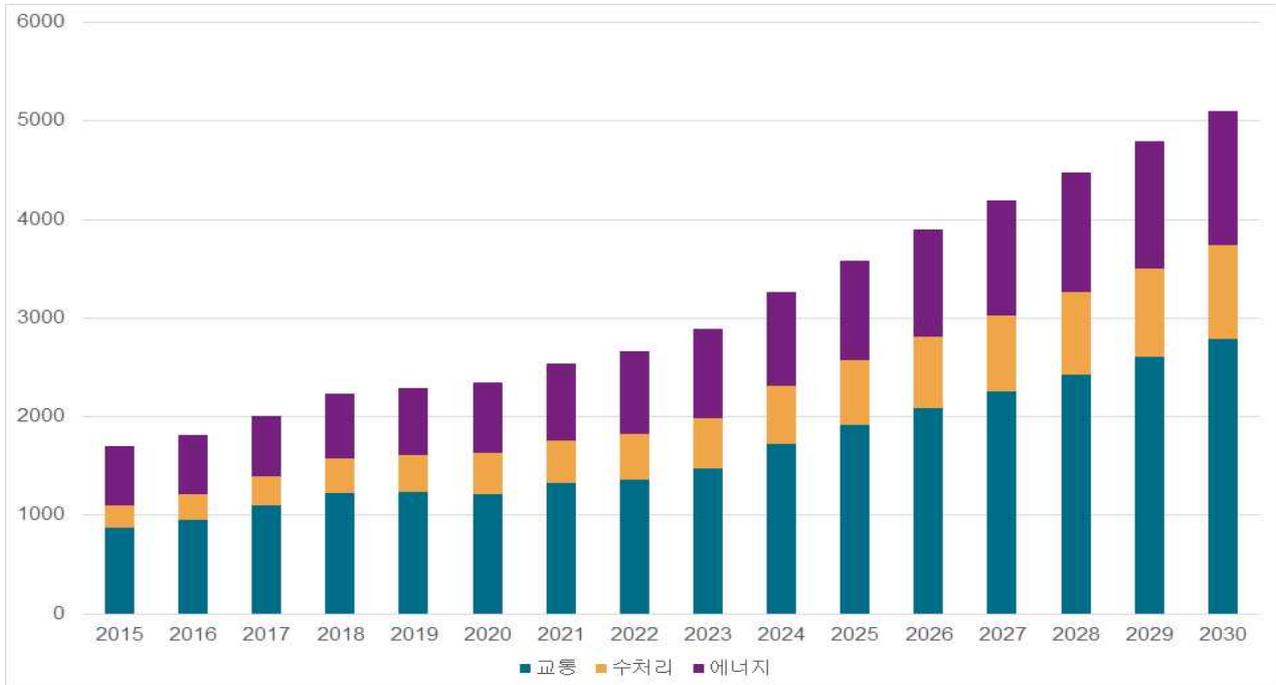
(아시아) 2023년 인프라 시장규모는 2.89조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3.1% 증가한 3.27조 달러 전망

- 2023년 기준 세계 인프라 시장에서 아시아 지역 비중은 61%로 규모 및 성장률 측면에서 세계 인프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 2023년 아시아지역 인프라 시장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8.2%를 기록할 전망
- 2023년 중국 인프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1.78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규모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한 2.04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낮아진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2024년 투자액은 올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주요 아시아 국가 인프라 시장규모 전망은 인도네시아 2,283억 달러, 일본 2,038억 달러, 호주 1,929억 달러, 인도 1,148억 달러, 한국 705억 달러, 태국 254억 달러, 필리핀 209억 달러, 말레이시아 165억 달러, 베트남 127억 달러

- 2023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도로 등 교통 분야 1.47조 달러, 에너지 분야 0.90조 달러, 수처리 0.51조 달러를 형성해 전년 대비 각각 8.2%, 6.9%, 9.8% 증가
- 2024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1.72조 달러, 에너지 분야 0.99조 달러, 수처리 0.59조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6.6%, 5.7%, 17.1% 성장할 전망
- 2030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2.78조 달러, 에너지 분야 1.36조 달러, 수처리 0.96조 달러를 형성할 전망
- 아시아지역은 글로벌 인프라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도로 등 교통분야 인프라 시장이 빠르게 커질 전망

아시아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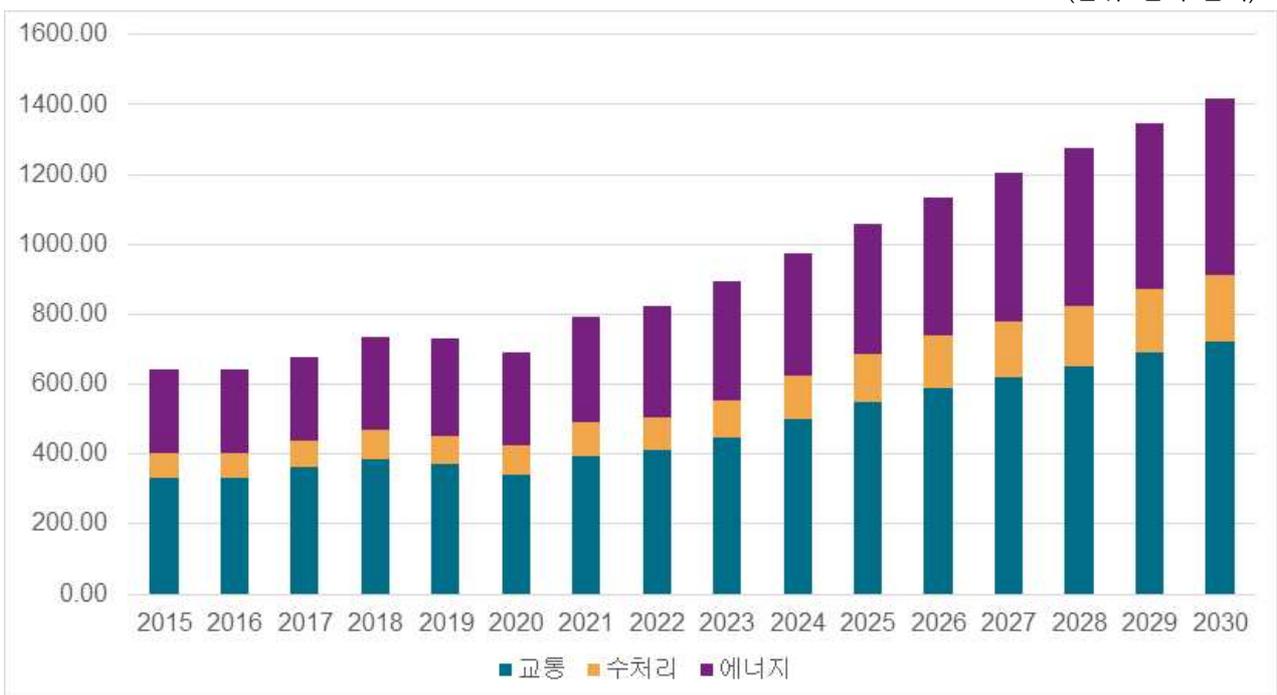
자료: IHS

(유럽) 2023년 인프라시장 규모는 8,939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9,751억 달러

- 2023년 유럽 인프라 시장 성장률은 8.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이보다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선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 중립 및 ESG 등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용 교통 시스템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2023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4,100억 달러, 에너지 분야 3,382억 달러, 수처리 1,081억 달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인프라 시장규모는 2022년 87억 달러, 2023년 11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4년 종전이 될 경우 2025년부터 인프라 재건을 위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
- 2025년 시장규모는 264억 달러, 2026년 356억 달러, 2027년 45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야별로는 2025년 기준 에너지 분야 193억 달러, 교통 분야 58억 달러, 수처리 13억 달러
- 2030년 인프라 분야별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7,214억 달러, 에너지 분야 5,030억 달러, 수처리 1,914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유럽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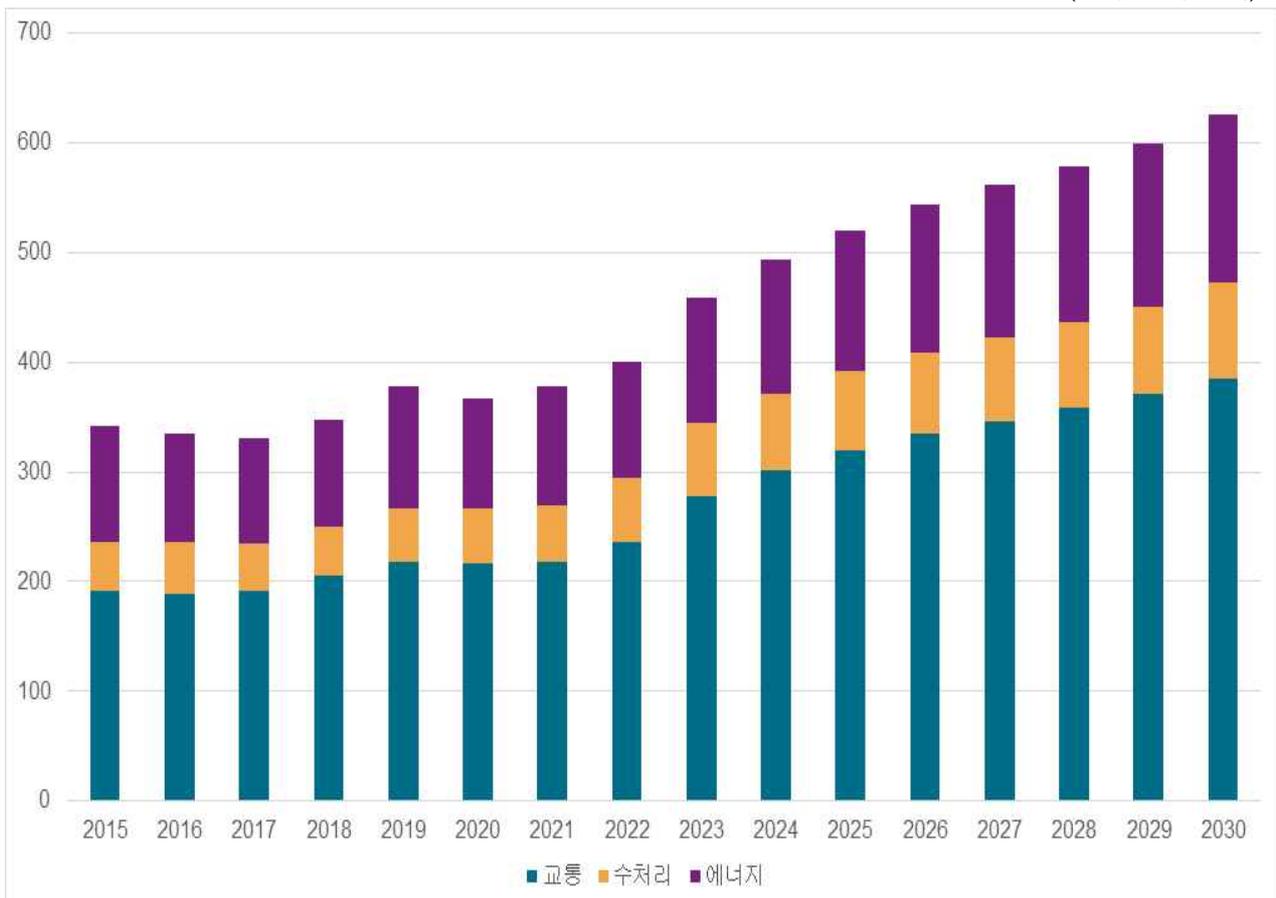
자료: IHS

(북미) 2023년 북미 인프라 시장규모는 4,588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4,936조 달러

- 2020년 코로나19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북미 인프라 시장은 2021년에 2019년 수준으로 원상 회복되었으며, 2022년부터 다시금 성장궤도에 진입
- 2023년 북미 인프라 시장은 전년 대비 14.7%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도 높은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기상황이 호황인 상황이며, IRA 시행으로 친환경 분야 인프라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 2023년 분야별 북미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2,780억 달러, 에너지 분야 1,135억 달러, 수처리 672억 달러이며, 2024년 분야별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3,016억 달러, 에너지 분야 1,229억 달러, 수처리 690억 달러

북미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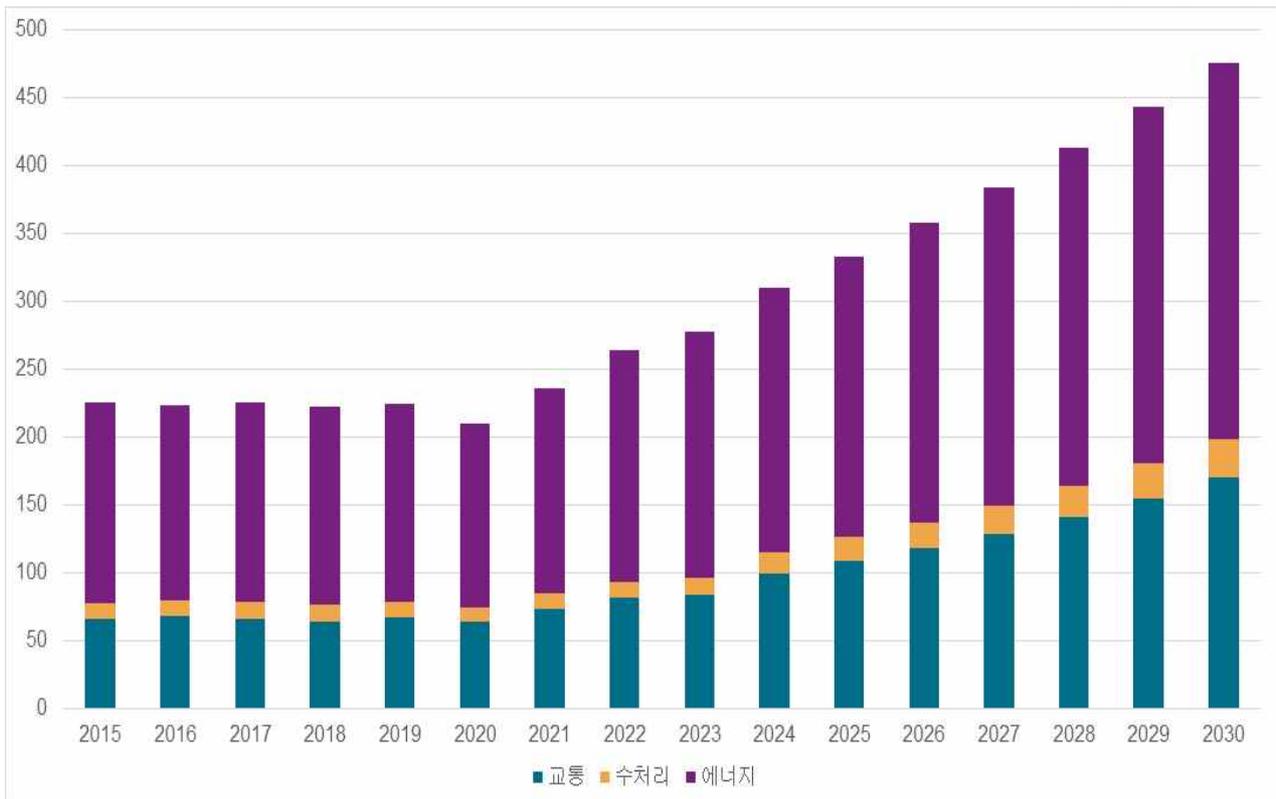
자료: IHS

(중동·아프리카) 2023년 인프라 시장규모는 2,773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인프라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3,098억 달러

- 중동·아프리카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2024년 인프라 시장규모가 3,200억 달러에서 3,100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줄어들어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도 등을 통해 우회 수출되고 있어 현재 공급에 큰 차질이 없는 상황
-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각국의 금리인상 행진도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에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
- 2023년 기준 분야별 시장규모는 에너지 분야 1,815억 달러, 교통 분야 831억 달러, 수처리 127억 달러
- 원유 수출이 주 수입원인 관계상 에너지 분야 투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며, 최근 화력발전 대신 발전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고 있는 것도 주요 특징
- 2025년 시장규모는 3,33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시장규모는 4,760억 달러에 달할 전망

중동·아프리카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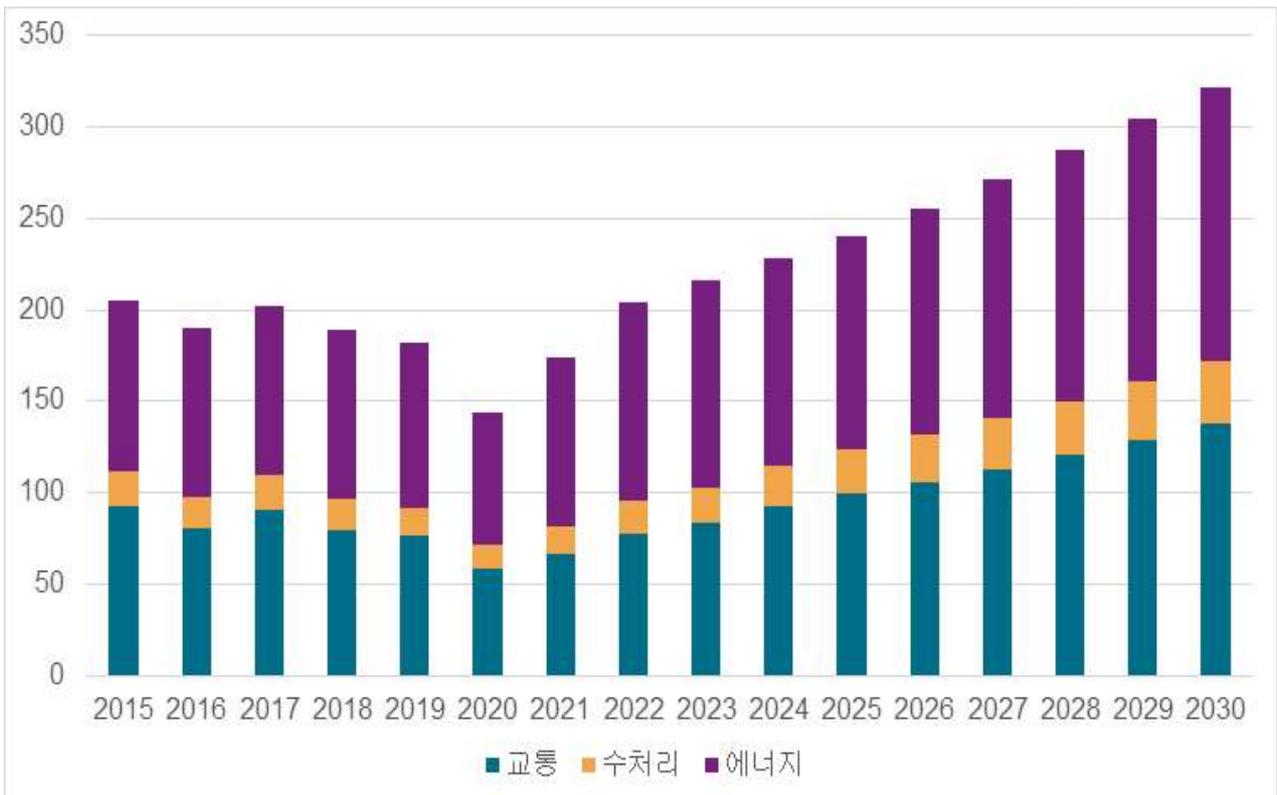
자료: IHS

(중남미) 2023년 남미 인프라 시장규모는 2,157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2,278억 달러

- 주요 대륙 중 인프라 시장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며, 정치 불안 및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프라 투자도 저조한 상황
- 2023년 기준 분야별 시장규모는 에너지 분야 1,128억 달러, 교통 분야 839억 달러, 수처리 190억 달러
- 최근 IRA 시행으로 리튬 등 전략 물자에 대한 주요 공급처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
- 중남미 인프라 시장규모는 2025년 2,404억 달러, 2030년 3,216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중남미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II. 글로벌 건설기업 매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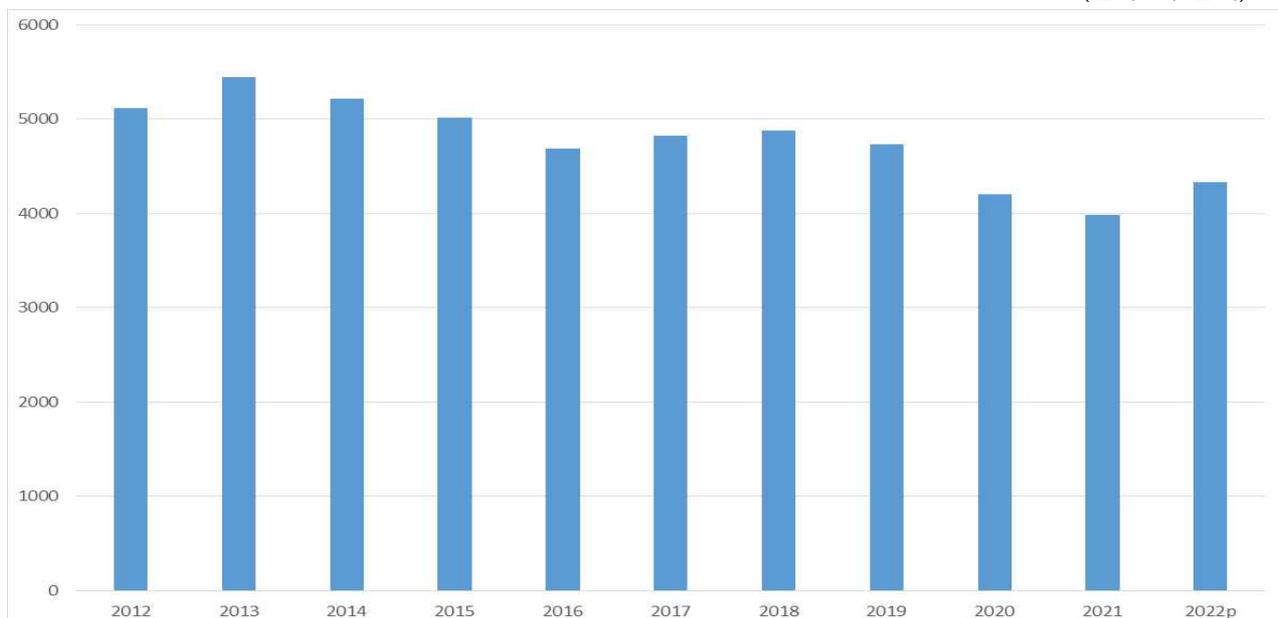
1. 글로벌 Top 250 기업 매출

글로벌 Top 250 건설기업의 2021년 매출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한 3,979억 달러에 불과

- 2021년 세계 건설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글로벌 Top 250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에 이어 역성장 지속
-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공공 건설시장은 활성화되었으나, 주택 등 민간 건설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
- 공공 건설시장은 외국건설기업들의 입찰 참여가 힘들어 세계 건설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
- 글로벌 Top 250 건설기업의 매출액은 2021년을 저점으로 2022년에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부터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건설기업의 매출액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철강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변수로 작용

글로벌 Top 250 건설기업 매출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ENR,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2. 공종별 Top 250 기업 매출

2021년 공종별 글로벌 Top 250 기업의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교통 분야 1,322억 달러, 빌딩 899억 달러, 정유·석유화학 516억 달러 순

- 인프라 분야인 교통 분야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공종에 걸쳐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으며, 빌딩 및 정유·석유화학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10.3% 및 10.6% 감소
-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부양을 민간기업 접근이 어려운 공공분야 발주가 늘어나고, 이에 비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민간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추정
- 세계 인프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2021년 교통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액은 2019년 매출액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는 내수 건설사 우대에 따른 기회 축소에 기인
- 코로나19 상황에도 태양광 및 풍력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시장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발전 분야 매출액 감소는 적은 상황

글로벌 Top 250 건설기업 공종별 매출 현황

(단위: 억 달러,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교통	1,522	31.2	1,466	31.0	1,305	31.0	1,322	33.2
빌딩	1,146	23.5	1,235	26.1	1,002	23.8	899	22.6
정유·석유화학	765	15.7	709	15.0	577	13.7	516	13.0
발전	507	10.4	486	10.3	471	11.2	450	11.3
산업시설	217	4.4	160	3.4	168	4.0	151	3.8
상수	144	3.0	139	2.9	130	3.1	112	2.8
제조공장	161	3.3	108	2.3	110	2.6	170	4.3
하폐수	85	1.7	79	1.7	86	2.0	72	1.8
통신	68.7	1.4	78	1.6	69	1.6	75	1.9
폐기물	7.3	0.1	5	0.1	5	0.1	4	0.1
기타	250	5.1	266	5.6	281	6.7	208	5.2
합계	4,873	100	4,731	100	4,204	100	3,979	100

자료: ENR

3. 지역별 Top 250 기업 매출

(아시아) 2021년 글로벌 Top 250 건설사들의 아시아 지역 매출액은 9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감소

- 2018년 이후 글로벌 Top 250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해외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세계 최대 건설시장인 아시아지역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액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정책 지속과 보호무역 확대에 따른 자국기업 우대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
- 인프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간발주보다는 공공발주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입찰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 2022년에도 2021년 기조가 지속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여러 변수로 글로벌 건설기업의 수주환경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유럽 및 북미) 2021년 유럽 및 북미지역 매출액은 각각 1,131억 달러 및 698억 달러

- 2021년 글로벌 Top250 기업들의 유럽지역 매출은 전년 대비 6.7%를 기록해 글로벌 Top250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
- 유럽은 다른 국가에 대한 시장 개방도가 높아 외국 기업의 접근이 어려운 타지역 내수시장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시장
- 2021년 및 2022년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유럽지역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유럽지역 건설사 매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 2021년 글로벌 건설사들의 북미지역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5% 감소
- 8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북미지역 매출액은 2021년 700억 달러를 하회했으며, 2022년 상황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2021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미국 기준 금리가 건설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임금 등 인플레이션 상황도 북미지역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동) 2021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6% 감소한 485억 달러

- 2018년 809억 달러를 기록했던 중동지역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5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상황
- 유가 약세에 따른 발주 감소 및 건설기업 간 경쟁 격화 등 글로벌 건설기업의 매출 상황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
- 2022년 중동 발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3년부터 지연되었던 발주 재개 등으로 2023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건설사들의 매출은 바닥을 치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Top 250 건설기업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억 달러,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아시아	1,274	26.1	1,252	26.5	1,073	25.5	976	24.5
유럽	1,078	22.1	1,058	22.4	1,060	25.2	1,131	28.4
중동	809	16.6	714	15.1	555	13.2	485	12.2
북미	809	16.6	883	18.7	816	19.4	698	17.5
아프리카	601	12.3	552	11.6	483	11.5	468	11.8
중남미	271	5.6	233	4.9	196	4.7	196	4.9
기타	31	0.6	39	0.8	21	0.5	25	0.7
전체	4,873	100	4,731	100	4,204	100	3,979	100

자료: ENR

4. 국가별 Top 250 기업 매출

2021년 글로벌 Top 250 기업 중 중국 기업의 매출액은 1,129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스페인 518억 달러, 프랑스 504억 달러, 미국 241억 달러, 한국 227억 달러 순

- 대부분 건설기업들의 2022년 해외 매출액은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중국 기업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증가
- 2021년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지역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아시아 412억 달러, 아프리카 277억 달러, 중동 194억 달러, 유럽 115억 달러로 주요 4개 지역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88%를 차지
- 특히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중국의 중동 매출액이 2016년 134억 달러 → 2017년 164억 달러 → 2018년 171억 달러 → 2019년 176억 달러 → 2020년 189억 달러 → 2021년 194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Track record가 쌓이면서 중동지역 수주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동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글로벌 순위에서도 전년과 동일한 5위를 기록



글로벌 Top 250 건설기업 국가별 매출 현황

(단위: 억 달러,%)

국가	2018년		국가	2019년		국가	2020년		국가	2021년	
	매출액	점유율 (%)		매출액	점유율 (%)		매출액	점유율 (%)		매출액	점유율 (%)
중국	1,190	24.4	중국	1,200	25.4	중국	1,075	25.6	중국	1,129	28.4
스페인	687	14.1	스페인	707	14.9	스페인	626	14.9	스페인	518	13.0
프랑스	426	8.7	프랑스	469	10.0	프랑스	456	10.8	프랑스	504	12.7
미국	342	7	독일	311	6.6	독일	333	7.9	미국	242	6.1
독일	316	6.5	한국	246	5.2	한국	214	5.1	한국	227	5.7
한국	290	6.0	미국	246	5.2	미국	204	4.9	이태리	222	5.6
터키	222	4.6	터키	216	4.6	이태리	202	4.8	터키	204	5.1
일본	197	4	영국	197	4.2	터키	183	4.4	일본	165	4.1
영국	189	3.9	일본	194	4.1	일본	163	3.9	네덜란드	90	2.3
이태리	162	3.3	이태리	145	3.1	네덜란드	80	1.9	독일	64	1.6
전체	4,869	100	전체	4,731	100	전체	4,204	100	전체	3,979	100

자료: ENR



III. 해외건설 수주 동향

1. 수주동향

2023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50.4% 증가한 173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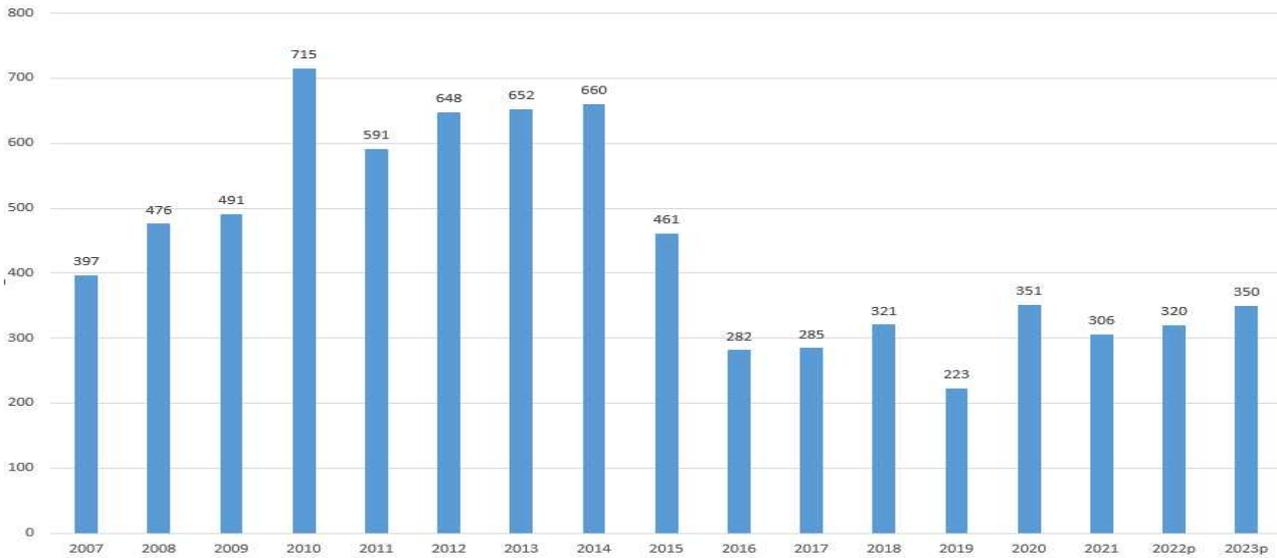
- 지역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중동 66.2억 달러, 북미 50.6억 달러, 아시아 40.4억 달러, 아프리카 6.5억 달러, 중남미 5.4억 달러, 유럽 3.7억 달러 기록
- 핵심 수주지역인 중동지역 수주가 전년동기 대비 197% 증가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를 견인
-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를 수주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증가에 크게 기여
- 북미 수주액은 IRA 시행으로 전기자동차, 리튬배터리, 및 태양광 생산 건설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 증가로 상반기 수주액이 전년 대비 약 30배 증가
- 아시아지역 수주는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했으며, 지역별 수주액은 대만 14.8억 달러, 카자흐스탄 9.3억 달러, 베트남 3.3억 달러 순
- 공종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플랜트 80.9억 달러, 건축 63.9억 달러, 토목 8.4억 달러를 기록
- 건축분야 수주가 전년동기 대비 109% 증가한 것이 특징이며, 해외 생산을 위한 공장 분야 수주액이 53.5억 달러를 차지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현 추이가 지속될 경우 350억 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하반기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대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력 시장인 중동 수주가 전년 대비 증가
- 코로나 상황 개선 및 유가 상승으로 중동 발주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하반기 네옴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중동지역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 국내 주택 등 건설경기가 하향으로 국내 건설기업들의 시선이 해외수주 확대에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인 팀코리아 전략도 수주확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그동안 호황을 누려왔던 아파트 등 국내 주택건설 시장이 원자재 상승 및 금리인상으로 향후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기업들의 수주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
- 하반기 네옴시티 및 원전 등 대형 수주가 예정되어 있어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연초 예상치 35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해외건설 수주 실적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IV. 시사점

2023년 세계 건설시장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금리안정 등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2024년 이후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할 전망

- 미국발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금리 안정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등 2023년에 영향을 주었던 경제 변수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 2024년 세계 건설시장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8%대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1,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화석에너지 기반 인프라는 노후화로 교체 시기가 도래했으며, 여기에 기후변화 이슈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 등 친환경 인프라로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국내 건설경기가 하락함에 따라 해외수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네옴시티 등 중동지역 발주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목표치 350억 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8조 원으로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
- 국내 건설시장은 2019년 166조 원, 2020년 194.1조 원, 2021년 212.0조원, 2022년 223.5조 원으로 호황을 이어왔으나, 2023년 국내 건설시장은 금리상승 및 정부 SOC 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 수익성이 높았던 민간 주택시장이 금리인상으로 급랭하고 있으며, 당분간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건설기업의 수주 전략이 국내에서 해외로의 전환이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
- 6월 5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미탈 플랜트 수주 및 하반기 네옴시티 발주 등 한동안 부진했던 중동 수주가 다시 활기를 띠 가능성 존재

연간 해외수주 400억 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선 글로벌 인프라 시장 공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분야는 인프라 분야이며, 인프라 분야는 2030년까지 연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
- 석탄 발전소 발주가 급감하는 등 글로벌 발전 플랜트 발주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전기 및 자율자동차 등장으로 현재의 교통 인프라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변경 및 교체될 것으로 예상



- 석탄 및 가스 발전 플랜트의 주요 발주처였던 중동도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기조로 돌아서 향후 화석연료 기반의 플랜트 발주 트렌드에도 변화가 예상
-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관련 인프라 투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인프라 수주를 위해선 과거와 같은 시공 위주의 전략으로는 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분야에 대한 수주 전략 변화가 필요
-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선 글로벌 발주가 정체되어 가는 플랜트 중심의 수주 포트폴리오를 인프라 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 대한 수주 확대를 위해선 사업 개발 및 운영 역량 확보가 최우선 과제
-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의 경우 인허가 확보, 운영 노하우 및 자본조달이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플랜트 시공 분야와 달리 상대적으로 기술 난이도가 높지 않아 수주확보를 위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존재
- 플랜트 및 시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역량을 인프라 및 사업개발·운영 분야로 밸류체인 확대가 필요하며, 사업개발을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 모델 “팀코리아” 체제의 활성화가 필요
- 원전 수주처럼 대형 발주는 금융 및 군사 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패키지 딜 형태의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발주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딜 콘텐츠 확보가 중요